

# 위기마다 기술에 투자... 독심으로 백년기업 향해 전진

## SAMSUNG 삼성전자 50년

〈中〉100년 기업, 초격차 더 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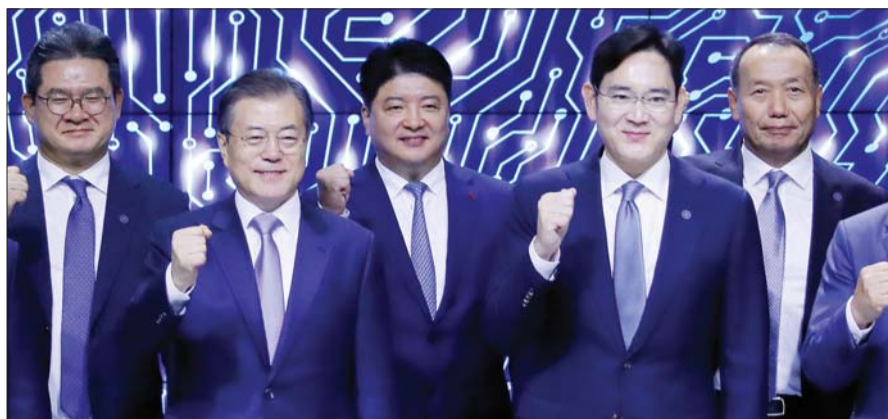
7나노 개발·양산 대만보다 먼저 성공  
AMD·퀄컴에 차세대 제품 수주  
메모리반도체 여전히 초격차 유지

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 13조원  
큐디 디스플레이 육성전략 발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EUV 라인 전경.

/삼성전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창사 50주년을 맞은 올해 큰 위기를 겪었다. 주력 사업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불황에 빠지면서 실적 악화가 심각했고,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정세 불안에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굴하지 않았다. 허리를 졸라매면서 몸을 숨기기도 투자자를 강화하고 연구 개발(R&D)에 매진하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그 결과 더욱 단단해진 몸으로 내년 반등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도전은 '반도체 비전 2030'이다.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이견의 회자

의 '비전 2020'을 잇는 차세대 먹거리 확보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우선 파운드리 사업 1위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일찌감치 극자외선(EUV) 공정을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 초미세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된 것. 그 첫번째 성과가 바로 7나노 공정이다. 시장 점유율을 절반 이상 독차지해온 대만 TSMC보다 한 발 앞서 7나노 개발과 양산에 성공하면서 AMD와 퀄컴 등의 차세대 제품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인텔과 애플 등 팹리스도 업체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비전 2030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성장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내 팹리스와 패키징 등 중소기업 지원도 약속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도 높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삼성전자를 7번째 '자살한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센서사업부 신설도 시스템 반도체 업계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빠르게 성장하는 보안과 전장 시장까지도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미지센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던 소니를 앞질러 1억800만화소제품

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 향상에도 속도를 붙였다. 오랜 기간 쌓아온 반도체 노하우를 활용해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1zD램에 이어 7세대 V낸드 양산까지 목전에 앞둔 가운데, 차세대 메모리 개발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미 STT-M램은 파운드리 반도체와 결합해 시장에 빠르게 확산 중이며, P램 역시 시장 수요에 따른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빠른 시일 내

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 13조원을 투자하는 '큐디 디스플레이'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다.

큐디 디스플레이는 자체 발광 소자인 퀀텀닷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로, 유기 발광 물질을 사용하는 OLED와 달리 번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형 OLED를 건너 뛰어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초격차'를 노리는 셈이다.

아울러 마이크로 LED를 사용한 '더월'도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양산 효율화를 통해 원가를 떨어뜨리면서 조만간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을 재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밖에 삼성전자는 가전 부문에서 밀레니얼을 겨냥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사업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더 프레임'과 '세로', 비스포크 냉장고 등이 주인공이다. 성능뿐 아니라 활용성 확대와 디자인 강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성공했다. 올 초에는 '프리즘 프로젝트'를 통해 맞춤형 가전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 1면 '美 연준 금리인하...'서 계속

# 5초만에 계좌이체... 터치 몇번으로 이율 6% 적금찾아

## 오픈뱅킹 써보니

은행 예·적금 상품 한번에 비교  
청년우대 주택청약 가입·전환도  
대출상품·조건·한도 비교 가능

계좌등록·인증방식 까다롭고  
앱 설치부터 계좌등록까지 20분  
금융소외계층엔 이용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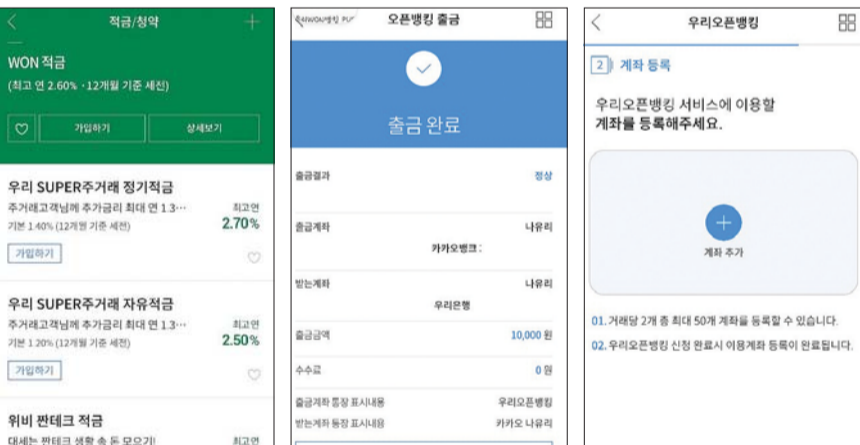
지난 10월 30일, 은행 앱 하나로 할 수 있는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대가 열렸다. 10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경남·부산·제주·전북) 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계좌를 등록하기만 하면 손쉽게 계좌 조회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오픈뱅킹은 계좌 등록 시 조회·이체가 쉽고, 예·적금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좌등록과 인증방식이 까다로워 핀테크 앱으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도 적잖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핀테크 기업까지 시장에 뛰어들면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우리은행 앱에서 카카오톡 계좌조회 후 송금

31일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은행 앱 '우리 WON뱅킹'을 설치했다.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인증하고 6자리비밀번호를 설정했다. 5초남짓 지났을까, 앱에 우리은행 계좌가 연동됐다.

오픈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선 다른 은행의 계좌를 등록해야 했다. 우리은행 앱에서 계좌추가를 눌러 카카오톡



우리은행 오픈뱅킹 앱내 적금 상품 조회 결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왼쪽부터) 우리은행 오픈뱅킹앱에서 카카오톡 계좌를 조회, 이체한 내역. 오픈뱅킹 계좌추가 화면. /나유리 기자

크의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이후 출금(이체)약관 동의와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카카오톡 계좌의 잔액과 거래 명세가 조회됐다.

바로 송금도 가능했다. 이체금액 1만원을 입력하고 우리은행 계좌를 선택하니, 수수료 '0원'이라는 표시와 함께 출금이 완료 됐다는 결과가 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체가 완료됐다.

여러 은행의 앱을 띄워 예금상품을 비교할 필요도 없었다. 예금상품(입출금, 예금, 적금·청약) 중 적금·청약을 선택하니 2.70%를 제시하는 우리 슈퍼(SUPER) 주거래 정기 적금이 가장 위에 올랐다. 기존 우리은행 앱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가장 위에 있는 적금을 선택했겠지만 오픈뱅킹은 아니었다. 손가락으로 톡톡 몇 번 화면을 내리니 국민은행의 위비잔테크 적금(2.70%)과 조건에 따라 최대 6%까지 제공하는 우리여행적금도 보였다. 한번에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상품은

신규가입과 전환가입이 가능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증빙서류등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해야 했다. 신규가입을 선택하고 홈택스와 연계해 근로소득증빙서류가 바로 제출됐다

대출상품의 대출조건과 최대한도도 비교할 수 있다. 대출 상품에는 예금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4가지다. 오픈뱅킹에서는 모바일에서 확인되지 않던 인터넷 영업점 상품도 클릭만 하면 확인이 가능했다. 총 16개의 신용대출 상품 중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한 상품은 11개, 영업점으로 신청해야 하는 상품은 5개였다.

### ◆까다로운 계좌등록 인증방식 불편

그러나 오픈뱅킹의 계좌등록과 인증방식이 까다로운 점은 아쉬웠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계좌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하나의 앱을 선택해 계좌 등록을 하고 고객 편의성에 따라 주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기도 하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앱 이용 시 계좌조회만 누르면 확인되던 모든 계좌를 하나

하나 직접 입력하고 있거나 수수료 무료 횡수 제한이 있더라도 핀테크 앱을 이용하는 편이 나을 듯 했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다음 달 11일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와 연동되면 보유계좌번호를 자동 조회해 등록할 수 있게 한다. 핀테크 앱처럼 계좌조회를 통해 등록하고 싶은 계좌를 선택하면 바로 조회이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는 까다로운 인증방식이다. 대다수 은행이 오픈뱅킹을 위해 앱을 신규출시 했다. 해당은행 앱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오픈뱅킹 앱을 설치하면 공인인증서나 보안 카드 등 까다로운 인증방식이 필요했다. 앱 설치부터 계좌등록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모바일 이용을 어려워 하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오픈뱅킹의 편리성을 체험해보기도 전에 포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오픈뱅킹 앱에 대한 설명 부족과 예적금 대출 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대다수의 은행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홍보만 강조할 뿐 앱을 사용하기 위한 인증방식이나 계좌등록방법은 부실한 측면이 있었다 설명서에 있어야 할 버튼은 없거나 다른 위치에 있었다.

한눈에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점은 좋았지만,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 변별력은 없었다. 은행들은 오픈뱅킹에 최적화된 경쟁력있는 상품개발에 한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차 서비스제공 범위를 넓혀가면 상품은 다양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2월 18일부터 핀테크 기업들까지 오픈뱅킹 서비스에 뛰어들어 경쟁이 본격화하면 소비자 사용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자본유출 등 우려 완화 美 금리, 영향 크지않아”

그는 또 금융시장의 평가임을 전제 한 뒤 "의결문에는 다소 그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제록 파월 의장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는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결문에 있었던 (경기)확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한다"는 내용이 '정책금리 스탠스가 적절한지 여부를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바뀐 부분은 매파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준의 이번 결정이 한은의 통화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 연준은 올해 들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우리나라는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의 미로 풀이된다.

윤 부총재는 "자본 유출 등의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연준의 정책금리 방향이 유일한 고려 사안은 아니고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큰 폭의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지난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행돼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을 하면서 금융안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변화된 것이 위기의 교훈"이라며 "별써 물가안정에만 중점을 두어 한다는 것은 이른 상황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김희주 기자 hj89@